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anuary 2025 Issue | Vol. 06

SPECIAL POINTS OF INTEREST

- 마르코스, 반도체 산업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page 1
- AMRO, 필리핀 지역 내 2위 GDP 성장률 전망 —page 1-2
- 경제학자들, 트럼프 정책의 영향 분석 —page 3-4
- 로무알데스: 필리핀, 2025년 다보스 포럼에서 지속적인 투자 유치 목표 —page 5
- 필리핀,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한국과의 파트너십 —page 5-6
- 필리핀, 2026년 아세안 관광 포럼 개최 예정 —page 6-7

EVENT

- [Jan 30, 2025] 필코렉과 친구들 골프 토너먼트—page 8-9

마르코스, 반도체 산업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January 22, 2025 | INQUIRER.net

마닐라, 필리핀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 특히 반도체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커뮤니케이션 사무소(PCO)가 수요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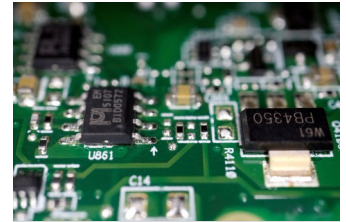
마르코스 대통령은 화요일 말라카냥 궁에서 열린 민간 부문 자문 위원회-교육 및 일자리 부문 그룹(PSAC-EJSG)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및 전자 산업, 교육, 그리고 인력 개발에 관한 기존의 권고안과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Create More 법이 자동차 제조업과 같은 다른 산업과 달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사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산업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미 수출에서 얻는 수입이 얼마나 큰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보도 자료를 통해 말했다.



FILE PHOTO: Semiconductor chips are seen on a printed circuit board in this illustration picture taken February 17, 2023. REUTERS/Florence Lo/Illustration/Photo

“우리는 정말로 이 산업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업계로부터 제안을 듣고,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PSAC-EJSG가 Create More 법의 시행 규칙 및 규정을 검토하고 반도체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 이후에 나왔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02521/marcos-on-semiconductor-and-electronics-industry>

AMRO, 필리핀 지역 내 2위 GDP 성장률 전망

January 22, 2025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A general view of the rush-hour traffic in Manila, Philippines, Dec. 20, 2024. — REUTERS

필리핀은 2025년에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통화 완화가 국내 수요를 촉진할 것이라고 ASEAN+3 거시경제연구소(AMRO)가 화요일 밝혔다.

AMRO는 분기별 지역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6.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의 예측과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우리는 성장 전망을 6.3%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중 하나이며, 부분적으로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라고 AMRO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호이 코르 박사가 화요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는 개발예산조정위원회(Development Budget Coordination Committee, DBCC)의 2025년부터 2028년까지 GDP 성장 목표인 6-8% 범위 내에 해당한다.
[Cont. page 2]

AMRO, 필리핀 지역 내 2위 GDP 성장률 전망

[Cont. from page 1]

필리핀의 성장 전망은 아세안(ASEAN) 회원국들 중 두 번째로 빠른 성장률을 보이며, 베트남(6.5%)에 이어 1위를 차지하고, 캄보디아(5.8%), 인도네시아(5.1%), 말레이시아(4.7%), 라오스(4.6%), 태국(3.1%), 브루나이 다루살람(3%), 싱가포르(2.7%), 미얀마(1%)를 앞선다.

ASEAN+3 지역에서는 필리핀이 중국(4.8%), 홍콩(2.6%), 한국(1.9%), 일본(1.3%)을 각각 앞선다.

“(중앙은행) 총재는 실질 금리가 여전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통화 완화를 지속할 여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제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코르 박사는 말했다.

2024년 8월에 통화 완화 주기를 시작한 이후, BSP는 금리를 75bp(기준 포인트) 인하했다.

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는 2월 13일 통화정책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AMRO는 강한 국내 수요와 수출이 필리핀의 성장 전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MRO는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관광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는 반면, 지역의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 관광객의 도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 관광객 수는 9.15% 증가하여 595만 명에 달했으나 2024년 목표치인 770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2024년, AMRO는 필리핀 경제가 5.8%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의 6-6.5% 성장 목표에 미달했다고 전했다.

“필리핀은 지역에서 가장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입니다. 올해 우리는 성장률을 5.8%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는 3분기가 매우 부진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코르 박사는 말했다.

3분기 동안, 필리핀의 GDP는 예상보다 낮은 5.2% 성장에 그쳤으며, 이는 악천후로 인한 소비와 농업 부문에 미친 영향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올해 첫 9개월 동안 평균 성장률은 5.8%였다. 4분기와 2024년 전체 GDP 데이터는 1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AMRO는 필리핀의 2025년 물가 상승률 예측치를 3.2%로 유지했으며, 이는 BSP의 3.3% 평균 예측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2024년 물가 상승률은 평균 3.2%였다.

전망에 대한 위험 요소

한편, ASEAN+3 지역은 올해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성장률과 동일하다. ASEAN은 올해 4.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2024년 4.7% 성장보다 약간 빠른 성장이다.

AMRO는 “성장은 주로 국내 수요에 의해 이끌릴 것이며, 강한 외부 수요가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성장률은 2024년 10월 업데이트에서 4.4%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주로 2025년 하반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중국 제품에 최대 60%, 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품에 25%, 그리고 10%의 보편적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AMRO는 “미국에서의 세금 인상은 가격을 상승시켜 민간 부문의 소비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ASEAN+3 경제국들에게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지역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AMRO는 2025년 지역 성장률이 0.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성장률은 잠재적으로 0.6%포인트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AMRO는 “부정적인 영향은 수요가 약화됨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점차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세금 보복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2026-2027년까지 지역 성장률은 1-2%포인트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입니다(2020-2022년 팬데믹 제외).”라고 AMRO는 말했다.

지역 전망에 대한 다른 위험 요소로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더 가파른 성장 둔화, 더 엄격한 글로벌 금융 조건,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운송 비용의 급등, 중국의 성장 둔화가 있다.

AMRO는 “즉각적인 보호주의 강화 위험을 넘어서, 지속적인 지정학적 경제 분열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역 경제,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장기 성장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고령화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1/22/648116/amro-says-philippines-likely-to-post-2nd-fastest-gdp-expansion-in-region/>

경제학자들, 트럼프 정책의 영향 분석

January 22, 2025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미국의 파리 기후 협정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여러 행정명령 중 필리핀 경제에 가장 해로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분석가들이 전했다.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의 경제학자인 레오나르도 란조나 주니어는 BusinessMirror와의 인터뷰에서 선진 경제국들이 기후 변화에 등을 돌리고 그 영향을 무시할 때, 필리핀과 같은 취약한 국가들이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국내외 싱크탱크들이 수행한 연구들은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서 해수면 상승과 더 빈번한 태풍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가 손실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필리핀 경제가 최근 3분기에 부진한 성과를 보인 것도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한 예에 불과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1/08/climate-risks-to-agri-infra-to-hurt-growth/>).

“트럼프의 발언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한 그의 인식 부족입니다. 이는 그가 추진하려는 이민 정책이나 세금 정책보다 나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란조나는 말했다.

“여기서 트럼프의 정책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미국과 같은 대국들이 기후 변화를 무시하면, 그 피해는 필리핀과 같은 기후 취약 국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란조나는 이민 정책에 대해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그들에게는 미국에서 불법으로 사는 것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 있는 필리핀 불법 이민자들은 보통 “이곳의 열악한 상황에 실망한 사람들”이며, 결국 “그곳에서 더 나쁜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고 전했다.

더 높은 세금

더 높은 세금의 경우, 란조나는 무역이 필리핀 경제 성장에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필리핀 경제의 70%는 소비 지출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생산하는 수출 품목의 종류를 재조정하여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과정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란조나는 말했다.

한편, 유니온뱅크의 수석 경제학자인 루벤 칼로 O. 아순시온은 기후 변화에 대해 언급된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결정이 필리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결정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로, 이는 미래의 팬데믹과 질병 통제 및 건강 문제와 관련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파리 선언과 WHO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기관입니다 [특히 필리핀과 같은 취약 경제국들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팬데믹, 질병 통제 등 중요한 문제에서 도움이 되는 글로벌 보건 조정을 위한 기관들입니다.”라고 아순시온은 말했다.

그는 “필리핀은 이러한 기관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만약 미국이 독자적인 길을 선택한다면, 이러한 기관들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순시온은 또한 세금이 여전히 필리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필리핀은 미국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글로벌 및 지역 가치 사슬을 통해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상호 연결성은 트럼프의 세금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국가들도 무역 파트너를 통해 파급 효과를 겪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는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이므로, 한 경제가 도전에 직면하면 파급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이므로, 그 어떤 조치를 취하든 다른 경제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아순시온은 말했다.

RCEP, 해독제 역할

하지만 아세안+3 거시경제연구소(AMRO) 수석 경제학자인 호이 이 코르는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높은 세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해독제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언급했다. [Cont. page 4]

경제학자들, 트럼프 정책의 영향 분석

[Cont. from page 3]

코르는 RCEP 하에서는 중간재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상품을 다른 RCEP 국가로 보내 가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특히 아세안 지역 내에서 상품 무역이 계속될 수 있으며, 미국이 높은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무역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을 떠날 때, 그들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장소가 됩니다."라고 코르는 강조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아순시온은 글로벌 무역과 개발의 변화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필리핀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처럼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추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아순시온은 또한, 필리핀 정부가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히 세금이 높은 상황에서 중요하며, 이는 연구가 진행된 후에 세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간을 활용해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연구'가 먼저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답게 예상되는 일이죠. 그는 사람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싶어합니다."라고 아순시온은 말했다. "이 지연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부담은 사실 멕시코와 캐나다가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란조나: CVF와 연계

한편, 기후 변화에 대해 란조나는 필리핀은 기후 취약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 취약 포럼(CVF)에 속한 국가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그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기후 취약 국가들의 목소리를 지역 및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필리핀과 이러한 국가들은 지역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이들 국가는 재난 대비,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같은 기후 회복력 프로젝트에 함께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후 회복력 프로젝트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홍수 방어, 복원력 있는 주택 및 관개 시스템 등이 있다.

란조나는 이와 함께 향상된 조기 경고 시스템, 대피 계획, 재난 대응 능력 등을 통해 강력한 재난 대비를 실현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이 방식이 태풍과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고, 농업인들이 농림업, 가금 저항성 작물, 지속 가능한 어업 기법 등을 채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은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뿐만 아니라 기후 취약 국가들 중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회복력과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란조나는 말했다.

농업과 인프라에 대한 위협

경제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기상 장애가 농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은 2023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5.2%로 둔화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이 3분기 동안 3.7%로 둔화되었고, 이는 2023년 3분기의 27.3%와 2024년 2분기의 21.7%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사회경제계획위원회(PEC) 아르세니오 M. 발리사칸 장관은 필리핀 기상청(Pagasa)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8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SA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은 5.2%로 둔화되었고, 이는 2분기의 6.4% 성장률과 지난해 3분기의 6%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의 4.3% 성장률 이후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Image credits: [AP/J. Scott Applewhite](#)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1/22/economists-weigh-impact-of-trump-policies/>

로무알데스: 필리핀, 2025년 다보스 포럼에서 지속적인 투자 유치 목표

January 21, 2025 | Filane Mikee Cervantes | Philippine News Agency



FOREIGN INVESTMENTS.
Speaker Martin Romualdez delivers his message at the welcome lunch and briefing for the Philippine delegation to the World Economic Forum 2025 annual meeting in Davos, Switzerland on Monday (Jan. 20, 2025/Switzerland time). Romualdez said their mission is to share the Philippine story of growth and hope and attract more foreign investments to spur sustainable growth that would benefit all Filipinos. (Photo courtesy of the House Press and Public Affairs Bureau)

마닐라 – 2025 세계 경제 포럼(WEF) 필리핀 대표단은 경쟁력,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 포럼에서의 과거 성공을 바탕으로 기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마르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이 월요일(스위스 시간) 말했다.

"2025 WEF에 참여하는 것은 필리핀의 협력 촉진, 투자 확보, 그리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에 대한 필리핀의 약속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로무알데스 의장은 다보스에서 열린 필리핀 대표단 환영 만찬에서 말했다.

그는 올해 포럼의 주제인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력"이 필리핀의 회복력, 혁신, 경제적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분열과 갈등의 지속적인 하방 리스크 속에서도 여전히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고 파트너십을 강화할 기회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2025 WEF의 필리핀 대표단을 이끌게 된 재무장관 랄프 렉토는 고위험 산업, 물류 개발, 노동력 향상, 인공지능(AI) 및 금융 포함 이니셔티브 확장을 목표로 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과거 성공을 활용하다

로무알데스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마할리카 투자기금(MIF)을 소개한 것을 포함한 과거의 성과를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 WEF는 MIF의 성공적인 입법화를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필리핀 대표단은 이후 2024년 WEF를 필리핀의 새로운 국부펀드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2024년 WEF 국가 원탁 회의를 필리핀에서 주최한 것을 언급하며, WEF의 보르제 브렌데 회장이 필리핀이 향후 10년 내에 1조 달러 경제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표의 핵심은 국가 내에서 경쟁력, 효율성 및 경제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투자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라고 로무알데스는 말했습니다.

2025년 WEF는 130개국의 국가 원수, 비즈니스 임원 및 정책 입안자 등 약 3,000명의 글로벌 리더들이 참석하여 대화의 장을 열고 중요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로무알데스는 또한 민간 부문이 WEF에 점차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개혁 추진과 경제 성장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민간 부문은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야 하며, 정부와 협력하여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로무알데스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F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강력한 기반 위에 더 많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42295](https://www.pna.gov.ph/articles/1242295)

필리핀,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한국과의 파트너십

January 19,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은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한 디지털 혁신 및 혁신 노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MANILA BULLETIN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하여 1월 16일 마카티 시 뉴월드 호텔에서 한국-필리핀 경제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첫 번째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ont. page 6]

필리핀,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한국과의 파트너십

[Cont. from page 5]

2020년 한국 경제재정부(MOEF) 주도로 시작된 한국-필리핀 경제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은 한국과 파트너 국가 간 지속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년간의 정부 간 정책 및 기술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출범식에는 한국 경제재정부 부국장 서병관, KOTRA 개발협력실 실장 박철호, KOTRA 마닐라 사무소 실장 이수정, 한국 해외 인프라 및 도시 개발 공사 이무혁 이사, 주한 필리핀 대사관 송현태 1등 서기관, 정보통신기술부(DICT) 다비드 알미를 주니어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필리핀의 정보통신기술 향상을 위한 EIPP 하에 개발될 세 가지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NEDA 투자 프로그래밍 차관인 조셉 카푸노는 파트너십이 양국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혁신과 변환 프로젝트를 추진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과 한국 간 파트너십의 흥미로운 장을 시작하려는 문턱에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며 양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난해 양해각서(MOU) 서명으로 이제 DICT의 세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EIPP 하에 추진될 프로젝트에는 필리핀 국가 통신 위성 로드맵 수립, 필리핀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실행 계획 수립, 통합 데이터 센터 실행 계획 수립이 포함됩니다.

국가 통신 위성 로드맵을 통해 필리핀의 통신 위성 산업 부문을 위한 강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편, 필리핀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은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전략을 위한 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는 한국의 통합 정보 자원 모델을 채택할 예정이며, 이는 데이터 센터 운영에 대한 기술적 및 전략적 전문 지식을 포함합니다.

카푸노 차관은 “우리의 공동 노력을 통해 양국이 혁신, 협력 및 공동 발전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번영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필리핀은 올해 말까지 상위 중소득 국가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1/19/2415181/philippines-south-korea-partner-promote-digital-transformation-innovation>

필리핀, 2026년 아세안 관광 포럼 개최 예정

January 21, 2025 | Ma. Stella F. Arnaldo | Philippine News Agency



Malaysian Minister of Tourism, Arts and Culture Dato Sri Tiong King Sing turns over a gavel to Philippine Tourism Secretary Christina Garcia Frasco symbolizing the Philippines takeover of chairmanship and hosting of the Asean Tourism Forum (ATF) in 2026, during the closing ceremony of the ATF 2025 Johor Bahru, Malaysia. (DOT photo)

필리핀은 2026년 ASEAN 관광 포럼(ATF)을 주최하게 되어, 자국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관광객들이 더 많이 방문하도록 유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광부(DOT)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 관광부 장관은 ATF 2025 종료 시 말레이시아 조호르에서 열린 공식 인수식에서 2026년 ATF 의장직을 공식적으로 수락했습니다. 필리핀은 군사 정권이 통치하는 미얀마가 주최 의무를 포기한 후 의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ATF 2026에는 ASEAN 관광 장관 회의가 포함될 예정이며, 이 회의는 2026년 1월 세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TF에는 약 1,500명의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은 또한 2026년 ASEAN 정상 회담을 주최할 예정이며, 관광부는 말라카냥이 이끄는 국가조직위원회로부터 관광,接客업, 투어, 사회 행사 및 현장 개선 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ASEAN 2026을 위한 준비 회의는 마닐라와 보라카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2026년 ASEAN 의장국을 맡게 되며, 2026년 1월 세부에서 열리는 제29차 ASEAN 관광 장관 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회의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관광 성장의 잠재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프라스코 장관은 말했습니다. [Cont. page 7]

필리핀, 2026년 아세안 관광 포럼 개최 예정*[Cont. from page 6]***이벤트의 중심지, 세부**

ATF(아세안 관광 포럼)는 보통 3일간의 여행 교류(Travex)를 포함하며, 이는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B2B) 미팅을 촉진하는 주요 무역 박람회로, 아세안 회원국들이 각각의 관광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라스코는 세부가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세부는 단합의 상징입니다—커뮤니티,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이윤을 추구하며 동시에 책임감 있는 관광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라스코가 관광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그녀는 세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네스코 관광 포럼 및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위원회의 제36차 합동위원회 회의 등 여러 국제 관광 관련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세부의 관광은 팬데믹과 2022년 슈퍼태풍 오데트의 피해로 인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평균 일일 요금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객실 점유율은 여전히 2019년 평균보다 25% 낮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usinessMirror의 “세부 및 기타 국내 목적지의 수요 부진으로 인해 도달 목표 위협” 참조, 2024년 6월 28일)

아세안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포함됩니다. 러시아, 일본, 인도, 한국의 대표자들도 ATF에 참여합니다.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아세안 회원국이지만, 미얀마의 군사 정권은 아세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관광

“필리핀은 환대 정신과 깊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위해 순수한 해안들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ASEAN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써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한 통합, 지속 가능성 및 번영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라고 프라스코 장관은 말했습니다.

DOT 장관은 또한 ATF 2025의 부의장직을 맡았으며, 2025년 이후 ASEAN 관광 부문 계획(ATSP)의 개발을 위한 국가 조정자로서, 지역에서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부문을 촉진할 수 있는 권장 사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수량을 넘어서 품질에 있습니다. 관광에서의 편리함과 안전을 우선시하며, 장기 체류와 지출 증대를 촉진하고, 동시에 우리의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우리의 유산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라고 프라스코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단순히 방문객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출, 기여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ASEAN을 진정으로 특별한 관광지로 만드는 독특한 문화와 생태계를 보존하는 원칙에 의해 추진됩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1/21/phl-to-host-asean-tourism-forum-2026/>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PHILKOREC & FRIENDS GOLF TOURNAMENT

JANUARY 30, 2025 (THURSDAY)
WACK WACK GOLF & COUNTRY CLUB

REGISTRATION STARTS AT 7:00AM
SHOTGUN AT 8:30AM

REGISTER HERE:



PHILKOREC & FRIENDS GOLF TOURNAMENT

REGISTRATION

NON-WACK WACK MEMBER (PHP 10,999)

WACK WACK MEMBER (PHP 5,499)

COMPANION / NON PLAYER (PHP 3,000)

Mulligan (P500 Front, P500 Back). Caddy & Golf Cart not included.

Appropriate Golf Attire is required.

INCLUSIONS

BREAKFAST

BUFFET LUNCH

GREEN FEE

1 TEE SNACKS

RAFFLE TIC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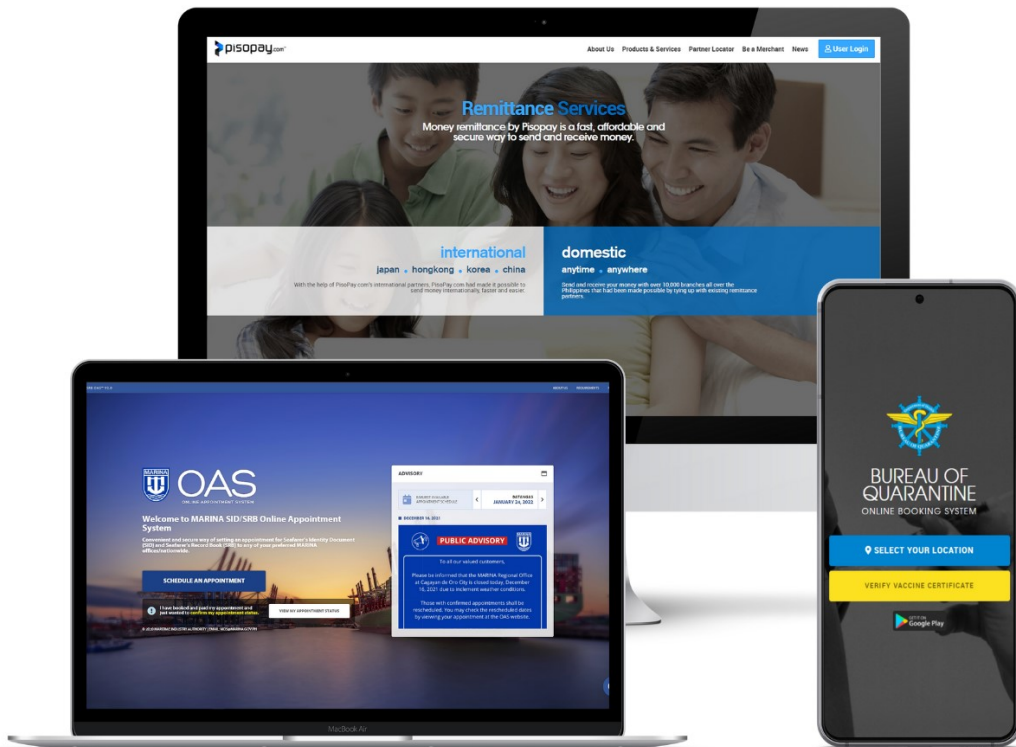
SOUVENIR (FROM SPONSOR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